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심윤경 소설가

어린 시절 나를 생물학의 길로 이끌었던 영웅들이 있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곤충들의 생태에서 마법 같은 이야기들을 뽑아내던 장 알리 파브르와 캐나다 늑대원 속에서 살아가는 야생 늑대들의 삶과 죽음을 기록한 어니스트 시튼이 끼친 영향은 어마어마했다. 이제야 고백하지만 사춘기 이전까지 나의 숨겨진 자아 정체성은 늑대였다. 내가 네 발로 기어다니거나 방구석에 코를 대고 쿵쿵거리는 습관이 있었던 것은 내가 늑대였기 때문이었다. 나는 어둠한 화장실에서 낯선 침입자 늑대를 물리치고 마루 아래 숨겨진 먹이를 찾아내고 장능에 숨겨둔 어린 늑대들을 보호하며 혼자만의 늑대 세계에 거주했다.

청소년기에 새로이 찾아낸 영웅은 템플 그랜딘이었다. 템플 그랜딘은 자폐인으로서 축산 현장의 관행과 구조를 낱알이 파악하고 동물이 고통이나 두려움 없이 죽을 수 있는 동물친화적 도축 시스템을 개발했다. 그녀의 통찰에 의하면 죽을 자체는 동물에게 큰 공포의 대상이 아니다. 그들은 미래를 예측하지 않는, 오로지 현재에 충실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도축장에서 그들을

답을 넘는 사람들

가다리는 큰 칼의 존재에도 두려움이나 비애를 느끼지 않는다.

가축이 패닉에 빠져 난동을 부리게 하는 것은 필력이 있는 깃발이 드리우는 그림자의 빠른 움직임, 발굽이 미끄러지는 젖은 철판, 직각으로 구부러지는 통로, 등심 등성한 나무판자 사이로 돌연히 쏟아지는 눈부신 빛 같은 뜻밖의 사물들이다. 템플 그랜딘은 도축장에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여 동물들이 안정적으로 무뎌 무뎌 걸어가 고요한 최후를 맞을 수 있는 동물친화적 도축장을 설계했다. 동물친화적 도축이라니 이윤배반적으로 들리지만 패닉에 빠진 동물이 몸부림치다가 다치면 도축된 고기의 가족의 품질이 저하되었기 때문이라는 축산 농가의 비유를 절감하고 효율을 높이는 데에 크게 기여했고 템플이 설계한 새로운 시스템은 복미 축산 농가에 빠르게 적용되었다.

보통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 동물의 사고를 한눈에 꿰뚫고 기존 건축 문법과 전혀 다른 새로운 동선 구조를 설계할 수 있었던 템플 그랜딘의 위대한 업적은 바로 그가 자폐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책의 내용이나 경험한 장면을 사진을 찍듯이 기억에 저장해 곧바로 찾아보고 기억 속의 구조물을 자유자재로 zoom in/out하며 360도 입체적으로 둘러볼 수 있는 '사진 기억법' (photographic memory)은 흔히 천재의 한 표상으로 여겨지기도 하는데, 이것이 바로 '동물의 기억법'이라고 템플 그랜딘은 설명한다. 템플 그랜딘과 같은 자폐인은 동물과 비슷한 방식으로 영상형 사고를 하기에 남다른 기억력을 갖기도 하고, 보통 사람과는 다른 사고

방식과 행동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한 자폐인 변호사와 그를 둘러싼 인물들의 모습을 보여준 한 드라마가 화제다. 주인공 배우는 탁월한 연기력으로 애매한 시선과 뻔뻔한 동작, ARS처럼 다소 기계적으로 들리는 말투 등을 더할 나위 없이 사랑스럽게 표현해내며 이 드라마의 인기몰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냈다. 이 드라마와 함께 36년만에 후속편이 제작되었다고 화제를 모은 인기 영화가 함께 오래된 기억을 자극해 나는 '레인맨'도 다시 찾아보았는데, 주연을 맡은 두 명배우는 천재적 기억력을 가진 자폐인이라는 이색적인 소재를 중심으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소외감과 고립감, 자폐 장애라는 극도로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따뜻하게 연결되는 사랑의 감촉들을 아름답게 보여 주었다.

자폐인이 보여 주는 기계적이고 폐쇄적인 표현과 반응 양식들 때문에 그들은 흔히 세상에 높은 담을 쌓고 세상과 소통하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로 여겨진다. 하지만 자폐인들에게는 그들의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고자 하는 욕구와 의지가 있다. 높은 담은 자폐인들이 일방적으로 쌓은 것이 아니다. 익숙한 보통스러움과 다른 낯선 감촉을 쉽사리 적대적으로 해석하고 비하하거나 배척하려 하는 우리 비자폐인, 비장애인 쪽에서 먼저 더 높은 벽을 쌓았다. 어떤 천재성을 내세우지 않더라도, 우리는 모두 지구 위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다. 우리 모두에게 지워진 공존의 책임을 오늘도 잊지 않아야겠다.

社說

‘신규 사업 올스톱 위기’ 국비 확보 총력을

전남도가 내년에 추진할 70여 개 신규 사업 가운데 현재까지 정부 예산에 반영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재정 운용 기조를 '긴축'으로 전환한 여파다.

전남도는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을 앞두고 우주 발사체산업 클러스터 조성(8082억 원)과 국립 갯벌습지정원 조성(5000억 원),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투자 브랜드 사업(1170억 원) 등 신규 사업 70여 개를 발굴, 국비 확보에 나섰다. 한 데 박장한 전남도 정부부지사서는 엇그제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내년에 추진할 신규 사업이 정부 예산에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통상 정부 예산안 편성은 각 부처가 5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한 후 7월까지 계속 사업에 대한 1차 협의를, 8월 초까지는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2차 협의를 진행한다. 이어 8월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해 9월 초 국회에 제출한다.

이러한 부처 심의 과정에서 신규 사업 반영이 부진한 것은 정부가 재정 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용하기로 하면서 장기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신규 예산은 우선순위에 뒤로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남 지역 국회의원 열 명의 상임위원회 배정 결과 국비 예산 확보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기획재정부위원회나 국토교통위원회에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자칫 내년 국비 확보가 올해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올해 예산 기준 전남도의 재정자립도는 26.23%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보다 4.1%포인트 상승했지만 여전히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중앙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지역 살림과 미래 설계는 전적으로 국비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전남도는 남은 기간 신규 사업들에 대한 타당성 입증을 강화하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정부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주택정책금융 대출 금리, 시중은행과 같아서야

빛을 내서 집을 마련한 사람들이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치솟은 대출 금리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내 집 마련의 기쁨도 잠시, 이자 폭탄에 한숨짓고 있는 것이다. 이들 대다수는 신흥부부처럼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한 젊은층이다.

2년 전 신흥부부 특별 공급으로 광주에 82.6㎡ 아파트를 장만한 30대 중반 A씨는 오는 10월 입주를 앞두고 있지만 걱정이 태산이다. 분양가 3억 2000만 원 중 주택금융공사 보증자리론으로 70%인 2억 2400만 원을 대출받아야 하는데 청약 당첨 당시 2.35%(30년 만기)이던 금리가 4.80%로 두 배 이상 올랐기 때문이다. 원금과 이자 상환에 매달 86만 원을 예상했는데 이전 대출을 받으려면 31만 원이 늘어 난 117만 원을 매달 갚아야 한다.

30대 직장인 B씨도 얼마 전 30평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했는데 이자 부담에 기쁨보다 걱정이 앞선다고 한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로 분양가의 70%인 3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4.6% 금리로 35년간 매달 140만 원을 갚아야 한다. 그렇다 보니 월급을 받아도 대출 원리금에 기본 생활비를 제외하면 쓸 돈이 거의 없다.

이들처럼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로 집을 산 젊은층이 최근 급증한 집값과 대출 금리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올해 광주에서만 1만 5000세대가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데 상당수가 A·B씨처럼 LTV(주택담보대출 비율) 최대치인 70%까지 빛을 낸 젊은이들이다.

금리 인상이 세계적인 추세라지만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출시한 보증자리론 같은 정책금융 대출 금리가 시중은행 금리보다 비슷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청년과 신흥부부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젊은층에게 주거 문제는 결혼과 출산의 전제 조건이다. 생애 첫 주택 마련에 나서는 젊은이에게라도 정책금융 대출 금리를 낮춰 주는 대책이 시급하다.

종교칼럼

신앙인의 높이뛰기



최현열 광주 순교회 담임목사

나는 어릴 적 학교 운동회 때마다 이어달리기 선수로 출전하였다. 앞서 달리던 상대팀 선수를 제치고 앞으로 달려 나갈 때 운동장의 함성 소리는 마치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을 때와 비슷했다. 사실 칠만 관중의 함성과 같다고 하면 너무 큰 과장이겠지만 분위기는 만만치 않았다. 내가 뛰는 순서일때 상대 선수가 앞서 달리면 반드시 제치고 앞으로 나갔고, 내가 앞서서 있으면 그 차이를 많이 벌였다. 그렇게 다른 아이들보다 키가 크고 달리기를 조금 더 잘한다는 이유로 육상 선수로 발탁이 되기도 하였다. 소년체전까지 나가서 메달을 따기도 했으니 그레도 잘하는 편이긴 했던 것 같다.

육상 경기는 트랙 경기와 필드 경기로 나뉘어지는데 우리나라는 마라톤을 제외하고는 국제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높이뛰기 국가 대표 선수인 우상혁 선수가 도쿄 올림픽에서 한국 기록을 세우며 4위를 차지했고 이후 실내 경기에서 236cm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다. 얼마 전 세계선수권대회

에서도 235cm를 뛰어 2위를 차지하였다. 그는 올해 세계 대회에서 랭킹 2위를 달리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가 경기 중에 보이는 모습과 경기를 즐기는 표정은 과연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박수를 보내게 한다.

육상 경기 중에 높이뛰기와 장대높이뛰기는 다른 종목들과 다르게 기록을 세우는 방식이 특이하다. 여타 모든 종목은 선수가 어떤 기록을 낼지 모르는 상태에서 최선을 다한 그 결과물과 기록과 순위가 결정된다. 달리기와 하는 선수들은 출발 신호를 듣고 있는 힘을 다하여 그 거리를 달려 결승선을 통과하여야 기록이 정해진다. 또한 멀리뛰기, 창·원반·포환던지기 경기는 자기가 뛰거나 던진 만큼 거리를 측정한다. 반면 높이뛰기는 자기가 넘을 기록을 정해 놓고 그것을 뛰어 넘어야 인정이 된다. 높이뛰기 종목의 매력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자기가 정한 기록을 향해 힘껏 달린다. 비록 불가능해 보이지만 말이다.

신약 성경 서신서 중에 사도 바울이 운동 경기 예를 든 구절이 몇 군데 있다. 그 구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새 번역 성경)라고 말하며 운동선수의 절제하는 삶을 들어 신앙인의 절제된 삶을 강조하고 있다. 과거 키 188cm에 74kg인 우상혁은 더 높이 날기 위해 살을 빼야겠다고 결심했다. 큰 보폭으로 뛰어가 몸을 세우듯처럼 뒤로 넘어 높이뛰기 바(bar)를 넘기 위해서 더 날렵해야 했다. 혹독한 식단 관리에 들어갔다. 평소 쌀

밥과 맵고 짠 음식을 좋아했지만 호밀빵, 샐러드 위주로 바꿨다. 마침내 65kg 정도의 몸무게를 꾸준히 유지하게 됐다. 이처럼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에는 절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월계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 규칙을 지키는 것은 운동선수에게 있어 필수적인 것이라 하겠다. 높이뛰기 종목은 다른 종목에 비하여 규칙이 까다롭지 않고 파울로 인하여 실격하는 경우도 많지 않다. 하지만 많은 운동선수들이 그렇듯 금지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가 있다. 긴 세월 높이뛰기 세계 기록은 1993년 세워진 245cm로, 쿠바의 소토마요르가의 기록이다. 그런데 그는 현역 시절 도핑 검사에서 두 차례나 금지 약물 복용이 드러나 논란이 된 선수이다. 그래서 그의 명성과 기록은 퇴색되어 버렸다.

우상혁 선수도 자기 키보다 훨씬 높이 떠 있는 바를 보며 두렵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가득차 있는 그의 표정은 너무나 대담하다. 그 이 유가 혹독한 훈련을 견디며 절제를 통한 생활을 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고, 규칙을 어기지 않아 거릴 것 없는 당당함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그리스도인들 또한 삶의 절제와 규칙을 준수하여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의 신앙은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다. 보는 바 신앙의 목표가 있다. 그 목표가 비록 높아 보일 지라도 기쁨과 자신감 속에 달려 나아가 높이높이 점프해 보기를 바란다.

기 고

인문학, 그리고 협동조합



신우진 광주시민인문학 사무국장

인문(人文)은 인간이 그리는 무늬라 했던가! 나는 현재의 나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지금, 여기'에서 가장 바라고 꿈꾸며 원하고 추구하는 내면의 주제는 무엇인가를 고민한다.

무엇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 것인가? 나는 그 답을 오랜 기간 천착해 온 인문학에서 구하고자 한다. 인문학을 통해 내가 어떻게 독립적 주체가 되는가, 즉 어떻게 내 삶의 주인이 되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오랜 시간 고민하였다. 인문학을 공부하는 목적은 인문학적 지식을 갖추어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인문적 활동을 할 수 있는 힘, 즉 세상을 읽고 타인의 마음을 읽어나는 통찰력을 기르는 것이다. 예컨대 통증을 없애는 일시적인 마취가 아니라 환부를 도려내는 근본적인 치료, 상처를 아물게 하는 근원적 치유, 그리고 성장을 유도하는 촉진제로서의 인문학이 앞으로 내가 목표로 하는 가치일 것이다.

그렇다면 인문학 공부의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텍스트를 통한 방법도 있지만 인문학의 특성

적으로 대응하면서, 만나고 대화하는 실천들이야말로 인문학의 본질이다.

더불어 행복해질 수 있는 삶의 지혜를 모색하려는 생활인이라면 누구나 인문학 공동체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지식과 삶의 불일치를 협동적 활동으로 극복하고, 타인들과의 관계를 통해 서로의 삶에 보탬이 되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대학이 결코 허락하지 않는 인문학, 해야 하는데도 하지 못하는 인문학을 실현하는 것이다. 제도의 규격에 머물러있고 왜곡될 수밖에 없었던 인문학적 상상력의 복원을 지향한다. 대학이 결핍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비춰 낼 수 있는 본보기가 될 것이다.

그러한 공동체의 현실적인 모델로 우리는 협동조합 체제를 선택했다. 협동조합 안에서의 조합원은 누구나 평등하게 권리와 의무를 행사한다. 이는 인문학이나 문화예술의 정신과도 닮아 있다. 상황이나 조건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껏 배우고 누리고 즐긴다는 측면에서도, 이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합원의 신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서로 돕고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광주시민 인문학 협동조합에서 제시하고 실현해야 한다. 이 또한 협동조합의 중요한 목표이고 그 자체가 어렵고도 중요한 인문학적 실천이다.

연대의 힘으로 합리적인 사고와 창의적 활동, 여기에 상호부조의 힘으로 이끌고 있는 광주시민 인문학 협동조합은 낱알이 흩미진진해질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진실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함께 증명해 보였으면 한다.

無等鼓

법률은 악인이 존재한다는 전제 아래 만들어졌지만 골프 규칙은 고의로 부정을 범하는 자가 없다는 전제 하에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는 부정행위를 하기에 골프만큼 쉬운 것은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러나 규칙을 어기고 남을 속였을 경우에는 어느 경기보다 가장 심하게 경멸을 받는 스포츠가 바로 골프다.

아마추어 골퍼들도 필드에 나가면 많은 순간 남의 눈을 속이고 스스로를 속이는 부정행위의 유혹에 노출된다. 공이 관련한 자리에 있을 때 평평한 곳으로 살짝만 옮겨놓으면 플레이하기가 훨씬 쉬운데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이 많아서다. 또한 공을 잃어버려도 주변에 로스트 볼이 있는 경우가 많다. KLPGA '장타 여왕' 윤이나 선수의 '오구(誤球) 플레이' 사건이 골프계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윤이나는 지난 6월 한국여자오픈대회에서 자기 공이 아닌 로스트 볼을 치고도 모른 척했다가 한 달 만에 부정행위를 자백했다. 그는 "선수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 성직에만 연연했던 지난날들을 되짚어 보며 반성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사과했다.

문제는 10대의 어린 선수 뒤에 있는 코치와 캐디 그리고 부모 등 어른들이 현장에서 이 사실을 곧바로 알았으면서도 숨겼고, 주위에서 부정행위에 대한 압박이 계속되자 한 달 만에 실토를 했다는 점이다.

골프는 경기 진행 요원만 있을 뿐 심판이 없는 유일한 스포츠다. 그래서 볼 터치나 속성 알까기, 마커 옮기기, 스코어 속이기 등 부정행위는 주말 골퍼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대회에서도 가끔 일어난다고 한다. 그러나 프로 선수가 투어 경기에서 부정행위 자리에 있을 때 평평한 곳으로 살짝만 옮겨놓으면 플레이하기가 훨씬 쉬운데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이 많아서다. 또한 공을 잃어버려도 주변에 로스트 볼이 있는 경우가 많다. KLPGA '장타 여왕' 윤이나 선수의 '오구(誤球) 플레이' 사건이 골프계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윤이나는 지난 6월 한국여자오픈대회에서 자기 공이 아닌 로스트 볼을 치고도 모른 척했다가 한 달 만에 부정행위를 자백했다. 그는 "선수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 성직에만 연연했던 지난날들을 되짚어 보며 반성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사과했다.

모럴 해저드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政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 (구독 신청·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에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